

농지연금, 평생의 땀을 노후의 안심으로 바꾸다

☞ 전주일보 | Ⓞ 승인 2025.11.04 14:10



이광희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
주임실지사장

"농부의 손은 거칠지만, 그 손이 만든 밥상은 세상에서 가장 따듯하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우리 농촌을 지켜온 어르신들에게 '농지'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의 역사이자, 한 평생 흘린 땀의 결실이며,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면, 그 자랑스러운 땅이 어느새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농사를 계속 짓기 어렵고, 자녀에게도 부담을 주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평생 일궈온 농지를 쉽게 팔수도 없는 게 농업인의 마음입니다. 이런 어르신들의 노후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농지연금입니다.

농지연금은 자신이 가진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그 가치를 연금처럼 매달 받는 제도로, 쉽게 말해 내 땅으로 받는 월급입니다. 평생 농사로 일군 땅을 팔지 않아도, 안정적인 생활비를 매달 받을 수 있는 노후 안정 장치인 셈입니다.

△내땅이 나의 연금이 되는제도

농지연금의 핵심은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농지를 활용해 노후를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가입자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로 제공하면, 감정평가를 통해 농지의 가치를 산정한 뒤, 그에 맞는 금액을 연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농지는 그대로 본인 명의로 남고, 사망 후에는 상속인이 상환하거나 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농지를 팔지 않고도 매달 안정적인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도의 가장 큰장점은 안정된 현금흐름입니다.

농업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이 들어오면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은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승계되어, 한 분이 먼저 떠나시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든든합니다.

최근에는 제도도 한층 개선되었습니다. 가입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 낮아져 더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급방식도 다양해졌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종신휘 외에도, 농지이양 은퇴직불형 신청 농업인이 공사에 농지를 임대하고 해당 농지를 담보로 연금에 가입한 후 지급기간이 종료되거나 수급자 사망 시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하여 연금채무를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유형등 다양한 형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생활패턴과 필요에 따라 선택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농지연금이 만든 변화, 그리고 웃음

실제로 농지연금에 가입한 어르신들은 입을 모아 "걱정이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주에 거주하는 한 농민은 "손주들 학비와 생활비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쳤는데, 이제는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마음이 편하다"며 "농사를 지을 때보다 더 안정된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농지연금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아니라, 농민의 삶과 정서를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평생 땅을 지켜온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은 '도움을 받는 제도'가 아니라 '내가 일군 땅이 나를 지켜주는 제도' 인것입니다.

△농촌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안정망

농지연금의 개인의 노후를 보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농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농지연금은 농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농촌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안정된 소득을 확보하면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젊은 세대의 귀농·귀촌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농지의 무분별한 외부 유출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농지연금은 농업인 개개인의 노후 복지와 함께 농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 사회적 안정망으로서 의미가 큼니다. 평생의 땀, 이제는 안심으로 돌려드릴 때 이제 농지연금은 선택이 아닌, 농업인의 권리이자 자부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평생 땀 흘려 지켜온 농지를 통해 다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농지연금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농지연금은 단순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농촌의 어르신들이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에 대한 사회의 존경이자 감사의 표현입니다. 내가 일군 땅이 내노후를 지켜준다 는 그 한마디 속에는, 평생을 농사로 살아온 농민의 자존심과 삶의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의 든든한 노후 동반자로서, 더 많은 분들이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생의 땀을 자산으로, 그자산을 안심으로 바꾸는 길, 그 길의 이름이 바로 농지연금입니다.

